



# 바다·산·용천수 품은 마을길 걸으며 건강한 여름나기



'물메 밭담길'



'수산봉 그네'



'애월 초당옥수수'

제주관광공사 7월 추천 여행지 물메마을 수산리·애월 편 소개 도내 최대 규모인 '수산저수지' 400년 마을 지키는 수호목 '곰솔' 용천수 품은 해변 '곽지과물해변' 구불구불 이어진 '한담산책로' 마을 대표 장소 이모저모 담아내

여름이다. 올해는 더위가 유난히 빠르게 찾아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제주 곳곳에는 벌써부터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가득하다. 아직 휴가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애월읍 마을산책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탁 트인 시원한 바다와 녹음이 우거진 산, 그리고 마을 길에 이르기까지 여름과 더위가 잘 어울리는 제주시 애월읍의 다채로운 매력이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물과 산이 함께하는 물메마을 '수산리' = 7월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7월 추천 여행지로 변화된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제주 마을 산책 '여름편-애월읍'을 제작해 제주관광 공식 포털

비짓제주(www.visitjeju.net)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여름편은 '물과 산이 함께하는 물메마을, 수산리(상)편'과 '용천수를 품은 애월(하)편'으로 구성, 애월읍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냈다.

'산에서 물이 난다' 하며 이름이 붙여진 수산리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수산리 편'에는 제주시 최대 규모 저수지인 '수산저수지'를 비롯해 400년간 마을을 지키는 천연기념목이자 수호목인 '곰솔나무', 수산봉의 명물인 '하늘그네'와 시골 마을의 정취를 한가득 담은 '물메밭담길', 여름 대표 간식인 '초당옥수수', 수산리 근처에서 즐기기에 좋은 감성 카페가 담겨있다.

물이 귀한 제주서는 보기 드문 저수지 중 하나인 '수산저수지'는 잔잔하게 일렁이는 저수지와 한라산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 1990년대 초 '수산유원지' 장소로 그 시절 아이들에게 추억을 안겨주던 곳이기도 하다. 수산저수지를 건다보면 자연스레 마주하게 되는 '곰솔'. 10m가 넘는 높이, 남쪽으로 15m가 넘는 수관이 저수지를 향해 굳게 뻗은 웅장한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흘러나온다. 수산저수지와 곰솔을 지나 수산봉에 오르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푸른 물결의 수산저수지와 병풍처럼 펼쳐진 한라산, 나 홀로 나무에 매달린 '하늘그네'가 어우러져 또 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 용천수를 품은 '애월' = '애월 편'에서는 용

천수를 품은 해변인 '곽지과물해변'을 비롯해 매력적인 해안 길인 '애월 한담해안산책로', 사시사철 흐르는 '하물', 섬·사색·물입의 공간인 '이색카페 모퉁이', 감각적인 이색 소품샵인 '미니멀웜', 구멍리 돌 옆에서 생산한 소금을 활용한 커피가 일품인 '카페소금', 제주 용암수와 유기농 재료로 만든 비건 버터가 유명한 '문사기름집' 등이 담겨있다.

하얀 백사장이 펼쳐진 '곽지과물해변'에서는 시원한 여름 바다의 정취를 느끼면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과물노천탕'에서 직접 밭을 담가 용천수의 짜릿함을 느껴볼 수도 있다. 곽지과물해변을 충분히 즐겼다면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한담해안산책로를 따라 걸어보자. 애월항에서 곽지과물해변까지 해안을 따라 1.2km 이어진 '한담해안산책로'는 30분이면 산책로를 둘러볼 수 있으며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명소 가운데 하나여서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에 맞춰 찾으면 바다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주다움의 매력이 가득한 마을 여행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가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마을 체류형 콘텐츠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영화觀

### 마침내, 탕웨이

아마도 모든 창작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 아닐까. 사랑은 끊임 없이 발화된다. 사랑을 말하는 일은 그래서 어렵다. 발화되는 순간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끝을 향해 달려가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은 사랑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 높은 사랑 영화다. 그러나 그 끝은 이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산 정상에 한 남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고 품위 있는 형사 해준(박해일)이 그 현장에 투입된다. 그리고 사망자의 아내인 서래(탕웨이)를 만나게 된다. 남편의 사망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꽃꽂이 서래는 유력한 용의자가 되고 해준은 그녀를 의심하며 수사를 시작한다. '헤어질 결심'은 이렇듯 수사극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내피는 온통 사랑의 빛깔인 영화다. 그런데 그 빛깔이 선홍색 설렘과는 다르다. 녹색도 파란색도 아닌 하지만 두 색깔 모두를 가진 청록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 서래 때문이다. 서래는 의심과 관심 사이를 기어가고 나온 서슬 퍼런 감정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닥뜨리는 사랑의 용사다. 의심을 넘어서는 진심, 관심을 피하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녀가 높은 산을 오르고 파도치는 바다를 마주하며 겪어내는 이 곡진한 사랑의 전쟁은 사랑의 상대방인 해준뿐만 아니라 보는 이의 심장까지 마음과 마침내 붕괴시키고야 만다. 박찬욱 감독의 섬세하고 리드미컬한 연출, 배우 박해일의 부드럽고 단단한 연기와 매력, 그리고 정서경 작가의 훌륭한 대사들과 류성희 미술 감독의 눈부신 미술 등 영화의 여러 요소들이 감탄할 정도로 인상적이지만 '헤어질 결심'은 누구보다 배우 탕웨이의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에 탄복하



영화 '헤어질 결심'.

게 만드는 영화다. 배우 탕웨이는 이 만만하지 않은 사랑 이야기의 지휘자다. 나이 많은 한국인 남편에게 고통받는 중국인 아내이자 노인들의 요양보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에게 불행은 마치 그림자처럼 느껴진다. 서래를 둘러싼 억측들과 추측들 또한 안개처럼 그녀 주변을 맴돈다. 그녀의 많은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서래는 희미한 것들을 꿰고 지나가는 사람이다.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임을 알아차리는 영민함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대담함을 지닌 캐릭터 서래를 배우 탕웨이는 아득하게 펼쳐낸다. 묵직하고 나른한 배우 탕웨이의 목소리와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오가는 그녀의 특별한 언어 그리고 상대를 꿰뚫는 듯한 시선과 우아함을 잃지 않는 섬세한 몸의 움직임은 다소 익숙할 수 있는 캐릭터의 설정과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다.

배우 탕웨이는 '헤어질 결심'을 통해 또 한 번의 사랑을 완결한 듯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탕웨이라는 배우의 미지의 세계에 또 한 번 발을 디뎠을 뿐이다. 깊어지는 관심 끝에 남은 건 그녀의 차기작을 기다릴 결심뿐이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축 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서귀포시 대정읍선거구



양 병 우

제주시 한림읍선거구



양 용 만

제주시 연동갑선거구



양 영 식

제주시 노형동갑선거구



양 경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제주양씨 천호공파 청년회 회장 양 용 석

- 직전회장 : 양윤희 · 수석부회장 : 양성환 · 자문위원 : 양정하 양창기 양재석 양병우 양성훈 양경철
- 부 회 장 : 양석운 양철우 양상철 양상아 양성준 양한철 양철웅 양수옥 양성완 · 감사 : 양정희 양성은 · 사무국장 : 양방훈